

# “사람냄새 풍기는 드라마 내 인생의 별책부록같아”

‘로맨스는 별책부록’ 배우 김태우



배우 김태우(48)의 이미지는 안정적이다. 1996년 KBS 2기 슈퍼 탤런트로 데뷔한 그는 이듬해 영화 ‘접속’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뒤 ‘공동경비구역JSA’(2000),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2004), ‘해변의 여인’(2006) 등과 SBS TV ‘그 겨울, 바람이 분다’(2013), KBS 1TV ‘징비록’(2015) 등 수 십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찍었다.

큰 기록 없이 20년 넘게 연기 생활을 이어온 김태우를 2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최근 종영한 tvN 주말극 ‘로맨스는 별책부록’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드러냈다.

“배우로서, 시청자로서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드라마가 사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봉지홍(조한철 분)과 서영아(김선영)의 구닥가게 에피소드라든지, 책이 파쇄되는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시청률을 높이려면 삼삼·사사관계 로맨스 쪽으로 더 파고들어도 됐을 텐데, 끝까지 사람 냄새 나는 얘기를 놓지 않고 가서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때문에 악역 이미지가 박혀버린 그는 밝은 역할이 그리워서 이번 작품에 출연하기로 결심했지만, 촬영할 수록 드라마가 자신의 취향이라 즐겁게 촬영했다고 한다.

“배우가 자기 취향대로 작품을 선택할 수 있나요. 스티븐 리 장르 싫어한다고 스티븐 리 영화 안 찍을 수 없잖아요. 인간 김태우의 취향과 배우 김태우가 해야 할 역할은 달라요. 그런데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한 3회쯤 됐을까, 대본이 너무 취향인 거예요. 같이 찍은 배우들과도 너무 잘 맞았고. 현장도, 연기도, 보는 시청자로서도 즐거워서 만족을 안 할 수 없는 작품이에요.”

김태우는 극 중 자신이 연기한 도서출판 겨루의 김재민 대표에 대해서도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라며 “김재민이 봉지홍 팀장에 게 한 대사, ‘넌 월급만 받아가면 그만이지만 난 월급날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 같은 대사들이 특히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한동안 악역만 하다가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 명량한 역할을 담당한 그는 “실제로도 밝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기록 없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연기하는 배우”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잠 감사한 말”이라며 몸을 낮췄다.

“그런 이미지에 동의하는 편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확 오른 적은 없지만, 확 떨어진 적도 없고, 연기도 20년 넘게 꾸준히 하고 있고요. 꾸준히 찾아주는 데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잠고마운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진 첫 꿈이 배우였는데, 이 세상의 몇 퍼센트나 되는 사람이 인생 첫 꿈을 이루고 그걸로 먹

고 살 수 있을까요.”

영화와 드라마 수 십편을 찍은 그에게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기본 좋게 보낼 수 있는 작품”이었다.

“배우에게 출연작들은 다 자식 같아요. 다 아픈 손가락이죠. ‘공동경비구역 JSA’나 ‘로맨스는 별책부록’ 같이 잘된 작품들은 사실 약간 순위권 아래예요. 배우는 모든 작품마다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많은 대중과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의미에서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기본 좋게 떠나보낼 수 있는 거죠.” /연협뉴스

## 광주·목포·여수MBC 공동제작 ‘오매 전라도’ 방송

월~금요일 오후 5시 55분  
광주·전남 문화·맛 등 소개



광주·목포·여수MBC가 공동제작한 프로그램 ‘오매 전라도’가 지난 18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오후 5시 55분 방영되고 있다.

55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광주·전남 문화, 인물, 건강, 생활, 맛 등을 소재로 화제의 현장을 전한다.

‘낭만 버스킹’ 코너를 통해서 시민들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작은 음악 선물을 선사한다. 광주·전남 이슈와 현안 등 주요 소식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달하는 ‘뉴스피드’와 숨겨진 맛집을 탐방하는 ‘우리동네 맛.zip

, 다양한 분야 속 화제의 인물과 만나는 ‘오매 그대’,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전달하는 ‘LTE 현장연결’ 등도 마련됐다. ‘빨강 인나소’는 요가, 필라테스 등 집에서 쉽게 따라 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한다.

이경찬·홍진선(광주MBC), 정명술·안윤석(목포MBC), 김순호(여수MBC) PD가 연출하고 김귀빈·손민지(광주MBC), 박은혜(목포MBC), 최현진(여수MBC)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tvN ‘미쓰코리아’ ... “한식으로 향수병 달래드립니다”

24일 첫방송



저마다의 이유로 한국을 떠났지만 여전히 다재롭고 깊은 한국의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tvN은 오는 24일 오후 4시 40분 새로운 일요일 예능 ‘미쓰코리아’를 처음 방송한다고 19일 예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들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 한국 요리를 해주고, 대신 그의 집에서 하루를 머무는 내용이다. ‘찐내투어’를 연출한 손창우 PD가 만드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배우 한고은과 신현준, 개그맨 조세호와 박나래, 가수 겸 방송인 광희와 프로듀서 돈스파이크, 방송인 신아영, 배우 장동윤이 출연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기존에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한고은

과 박나래가 동시 출격해 기대를 모은다.

박나래는 “저는 안주 위주 요리를 하는데 한고은 씨는 모든 요리를 섭렵했다. 가정집과 술집의 대결 같다”라고 웃었다. 이에 한고은은 “대결이 아니라 나

래 씨가 있어서 든든하다. 제가 실수해도 한 끼를 맛있게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화답했다.

첫 방송인 미국 편에는 1990년대 한국 농구계에서 활약한 조니 맥도웰 등이 출연한다.

/연협뉴스

###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봄이 오나 봄(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나의 독립 영웅(재)	00 닥터 프리즈너(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브레드 이발소(재)	10 생생정보 스페셜	25 푸르기 식자교실 55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교육, 사회, 문화 분야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지원	55 슬플 때 사랑한다(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전국시대	00 뒤뚱뚱 뽀그인 코리아(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 V 15 타오르자마 버스터 2 30 주간연예수첩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가로채널(재)
[7]	00 KBS 뉴스 7 40 한국인의 밥상	50 원소집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리랴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닥터 프리즈너(재)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계봉우>			
[10]	00 KBS 스페셜 55 UHD 습터	00 닥터 프리즈너	00 봄이 오나 봄	00 빅이슈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킬빌 1~2부	10 가로채널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5:30 통일 미리보기 <워터랜드 영화공작소>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나1~5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00 우리는 비트몬스터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1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7:00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13:10 장수의 비밀	19:30 EBS 뉴스
07:30 출동! 슈퍼윙스	13:40 다큐 시선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엠버와 함께 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미니특공대 X	14:4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중국 대항국 기행 4부 바람이 전해 준 이야기>
08:45 칼랄라 뽀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두다다콩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남쪽나라 오감기행 4부 들리나 봄>
09:30 몰랑	15: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21:50 다큐 시선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출동! 슈퍼윙스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0:30 한국기행(재)	16:30 칼랄라 뽀우(재)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25:10 과학 다큐-비온드(Beyond)
<목살 김치찌개와 차돌박이볶음밥>	17:15 두다다콩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1일(음 2월 15일 丁巳)

<p>36년생 대안 마련이 시급한 지경에 놓여있다. 48년생 간접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60년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연히 대처하다보면 길정을 부르게 된다. 72년생 별 재미가 없을 것이다. 84년생 주관적인 예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3, 85</p>	<p>42년생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54년생 경험을 살린다면 무난하게 타개할 수 있다. 66년생 특히 되돌아가는 마음으로 향할 때 조심하자. 78년생 마음이 실려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90년생 서두르면 실수하는 법이니 차근차근 행하자. 행운의 숫자 : 22, 35</p>
<p>37년생 미루어져 왔던 일이 재개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49년생 일관성 있는 진행만이 결실로 이끌 것이다. 61년생 생전혀 예기치 않은 만남이 있을 수 있다. 73년생 얻는 바가 많아서 보람은 느낄 것이다. 85년생 사세의 가닥을 쳐야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48, 99</p>	<p>43년생 의외의 돌발 상황이 나타나서 판국을 좌우하겠다. 55년생 뜻하는 바대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67년생 망설이지 말라. 79년생 긴요한 불 일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말라. 91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며, 갈구해 왔던 바를 이룬다. 행운의 숫자 : 17, 41</p>
<p>38년생 예리한 탐색을 하지 않으면 허점을 간과한다. 50년생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62년생 자료부터 살펴봐야 명료한 판단이 선다. 74년생 신중히 조처해야만 빈틈이 생기지 않는다. 86년생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한다. 행운의 숫자 : 65, 81</p>	<p>44년생 바람의 흔들림으로 알고 가뭇게 넘겨도 된다. 56년생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일이 있느니라. 68년생 새로운이 구태의연한 진부를 정리하게 될 것이다. 80년생 이번이 일어날 수도 있다. 92년생 목표를 향해서 발돋움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91, 88</p>
<p>39년생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길조가 보인다. 51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핵심을 벗어나지 말라. 63년생 완벽하게 대비 했을 때는 피해갈 수도 있다. 75년생 건너뛴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87년생 크게 상관될 바는 아니니 과평정 말라. 행운의 숫자 : 58, 72</p>	<p>45년생 차별화 시키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7년생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니 속단이나 방심은 금물이다. 69년생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어 후련하겠다. 81년생 자생력의 신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세이다. 93년생 흥과 복이 반반이니 의연히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20, 10</p>
<p>40년생 무르익어 가고 있으니 만사행통하리라. 52년생 거주장소라든바 버려도 된다. 64년생 머지않아 적응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76년생 발전적인 충돌 양상을 피고 있음을 감안 하자. 88년생 완벽을 추구하기란 사실상 힘들 것 같다. 행운의 숫자 : 67, 14</p>	<p>34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는 기회이다. 46년생 운로가 길하니 왕성한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58년생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70년생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된다. 82년생 공중공영의 기반이 성립되는 도량이다. 행운의 숫자 : 44, 91</p>
<p>41년생 단단히 매듭을 지어놓자. 53년생 다양하게 세분화 되면서 체계가 서러라. 65년생 여기저기에 빈틈이 보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자. 77년생 잘 살리다면 예상보다 많은 결실을 따를다. 89년생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흥왕의 기운을 함께 나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6, 04</p>	<p>35년생 변수의 사극에 놓여 있다. 47년생 기대하여 왔던 바대로 이루어지니 신바람 나리라. 59년생 일의 형세가 그렇듯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성국이라 할 것이다. 71년생 관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83년생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판국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31, 58</p>